

대구근교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s near Taegu Metropolitan City

계명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 서말희
계명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복지학과
교수 유가효

Dep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Master : Mal Hee Seo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Ka Hyo Yo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the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health variables, and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to life satisfaction of rural elders, to identify their problems and to find good directions to enhance the welfares for the rural olds who are in poor life situa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male old's satisfaction were higher than the female old's one. The life satisfaction didn't show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ge or religion. But, the higher educational level,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was shown. The higher the economic status,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was shown.
2.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had meaningful differences on the number of disease and health situation. The more disease they have, the lower life satisfaction was shown.
3.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old was highest when they live together with their married children than living alone. When they have spouse, the life satisfaction was high. And, as the relation with their children was close, the life satisfaction was high. So, it is thought the children have great influences to the rural old.
4.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physical health,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perceived economic status, and unemployment of their children were effective variables in the old's life satisfaction.

I. 서론

한국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 인식은 산업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한 1960년대, 1970년대부터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 상당히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박충선, 1989). 이는 국민보건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60년대에는 남자 51.1세, 여자 53.7세이던 것이 88년에는 남자 66.2세, 여자 72.7세로 높아졌고 95년에는 남자 69.6세, 여자 77.4세(1995,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로 현격하게 높아져서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비율도 1970년의 3.4%에서 1988년에는 4.5%, 2020년에는 11.5%로 늘어날 추세에 있어 인구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년층의 증가와 노년기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장, 부양인구의 증대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문제와 은퇴이후 노년기의 여가시간 활용문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문제, 사회심리측면의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박충선, 1989).

노년기는 삶을 정리하면서 자손들에게 삶의 경험을 전수해주고 나름대로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의식이 뒤따라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년기가 능력이 없고 또 의존할 곳도 없는 고통스러운 기간으로 남게 된다(공세권, 1995). 또한, 노인은 사회와 가정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시기에 있으며 특히 화폐가치를 중요시하는 산업사회에서 소득능력이 없는 노인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정 내에서 의존적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인간에게 노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인간발달의 한 과정임을 감안해 볼 때 노인의 특성과 생활만족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반 환경과 변인들에 관한 고찰은 중요한 연구분야이며 또한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지침을 탐색하는 작업이다(박혜인·최미경, 1991).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년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동안 지속되어온, 그리고 가장 활발하

게 진행되어온 연구주제이다(Mindel and Wright, 1982; Liang, 1984). 이러한 연구들의 목적은 개인들이 노년기에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의 질(質)을 높여줄 수 있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환경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박경란, 1988). 그 가운데 가정 환경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에 있어 가정이란 노후생활의 장(場)이며 가족은 노인 개개인의 정서적, 수단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용한 자원(Shanas, 1979)이고, 가족관계는 소속감(Mancini, 1972)과 안정감, 만족감(유시중, 1980)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녀와의 관계는 영속적인 유대의 특성으로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Shanas, 1979).

한국의 농촌가족은 산업화로 인한 도시이동으로 그 형태적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부녀화,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노인들은 노인이라는 불리한 조건에 농촌이라는 열악한 환경이 합쳐져서 도시노인에 비해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유교적 관습으로 노부모를 자녀들이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며 부양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농촌에는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도 미비하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활동보다는 이웃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만 의존하여 농촌노인들의 심리적 고독, 소외감 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노인에 대한 연구는 가정학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농촌노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여건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농촌노인의 생활을 이해하며 농촌노인이 당면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련변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사회인구학

- 적 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경제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건강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가족환경적 변인(가족유형, 자녀수, 배우자 유무, 자녀유대관계, 농사일 참여여부, 실직 자녀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년학에서 생활만족은 노년기의 정신건강, 적응, 성공적인 노화 등의 지표로 받아들여져 왔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1961년 Neugarten, Havighurst, Tobin 등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사회유리설(engagement theory)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사용된 이후부터이며 이 두 이론의 논쟁이 활발해지면서 생활만족도 개념도 발전하였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활만족도는 사기, 행복감, 심리적 복지, 적응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박경란, 1988). 우리나라에서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효재는 “생활만족도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서 기쁨을 얻고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영상을 갖고 대체로 행복하다고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이효재, 1979). 또한 최성재는 “생활만족도란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생활만족도 척도개발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최성재, 1986). 김명자는 “생활만족도란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자 일종의 태도로서

개인의 기대와 그 충족도 여부에 의해 정해진다(김명자, 1982)고 보았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해 간다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태라 볼 수 있는데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의미는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되며 장기간에 걸쳐 가치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관성있게 이루어진다(김명자, 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이 개인의 자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점과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 한다. 결국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치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인 여건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인 것이다(최혜경, 1984).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경제수준, 건강상태, 가족환경적 요인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해 대해 Liang(1982)과 Collette(1984)은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고 밝히는데 반해 Markides와 Martin(1979)은 생활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로 홍순혜(1984), 김명자(1982)의 연구가 있다. 여자노인의 낮은 생활만족도는 역할상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여는 역할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구분되는데 남성은 주로 사회활동에서 여성은 가정내에서 전통적 역할을 인정받는다. 여성은 자녀가 독립하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역할상실을 겪게 되는데 이에 대처할만한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고 노년기에 접어들어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본다(박충선, 1989).

한편, 남녀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로는 이옥재(1980), 박계범(1990), 김선희(1989), 박혜인·최미경(1991)의 연구가 있다. 즉,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Markides & Martin, 1979; 김명자, 1982; 박충선, 1989)이나 이효재(1979)는 교육수준 자체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소득, 활동내용 등 관련변인들과 복합적으로 관계한다고 보았다.

연령에 따라 연령이 같은 노인이라도 사회적 관계나 건강상태 등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Lee(1978)는 연령이 결혼만족도와 상관성이 없음을 밝혔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에 결혼이나 친구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다고 보기도 한다(박충선, 1989).

종교와 생활만족도의 관련은 종교활동에 참여도가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박미령 1970: 맹희재, 1984)가 있는데 즉, 노인의 종교유무와 소외감이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종교가 있는 노인이 소외감을 적게 느끼고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2) 경제수준 변인

소득의 상실은 많은 기회의 제한을 가져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변인이며 특히, 남자노인은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박계범, 1985) 즉 경제수준과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들이 대체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박충선, 1989)

3) 건강상태 변인

노인들에 있어서 건강은 활동가능성 여부를 결정해 주는 요인으로 생활만족도의 관련변인으로 중요하다(Markides & Martin, 1979). 최혜경(1984)은 노인들이 건강할수록 가정내 결속은 더 강해지며 사

회관계, 주거생활, 경제적 부양체계 등 변인들의 영향을 통해 가정내 결속은 생활만족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박계범(1985)의 연구에서도 건강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박충선(1989)은 노인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4) 가족환경적 변인

서구사회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왜냐하면 서구의 사회적 환경에서는 자녀와 동거함으로 인해 자녀의 존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박충선, 1989) 우리나라의 이효재(1979), 김명자(1982) 등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상희의 연구(1983)에서는 확대가족의 노인이 핵가족의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계범의 연구(1985)에서는 가족유형이 노인의 역할수행정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충선(1989)의 연구에서는 장남동거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배우자상실은 사회적인 고립, 배우자로부터 얻는 경제적 자원의 상실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거나 남·여 노인에 따라 달라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홍순혜의 연구(1984)에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의존적 경향이 크고 배우자에 의해 여자의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보다 만족도가 낮다고 보았다. 박계범(1985), 박충선(1989)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혜인 등(1991)은 배우자상실 그 자체보다 그에 수반되는 여러 요인들 즉, 배우자상실로 인한 경제력의 상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Quinn(1983)에 의하면 노년기의 부모는 사회활동이 감소하여 자녀와 더욱 깊은 애정적 유대관계를 이루고자 하므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았다. 또한 박충선(1989)은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는 상호간의 자원교환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고 자녀와의 접촉빈도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가 자녀와 얼마나 가까이 느끼는지의 주관적 유대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연구한 김지훈(1997)은 객관적인 측면과 정서적 유대관계로 자녀 유대관계를 세분하여 노인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보고하였는데 자녀와의 접촉빈도, 방문빈도, 전화빈도와 정서적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자녀수가 생활만족도에 대해 갖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하나 서미경(1990)은 가족수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자녀수는 대체로 전체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은 아니지만 여성노인에게서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연구(유성호·모선희, 1997)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적 변인으로 가족유형, 자녀수, 배우자 유무, 자녀 유대관계, 농사일 참여여부, 실직자녀 유무를 중심으로 생활만족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척도의 구성

본 연구의 질문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20개 문항, 독립변인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21개 문항,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환경적 요인

가족환경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유형, 자녀수, 배우자 유무, 자녀유대관계, 농사일 참여여부, 실직자녀 유무를 조사하였다.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자녀의 상호 방문정도, 전화 통화정도, 상호간 가사일, 물질적 도움정도 등을 물

어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으면 유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특성상 노인들이 농사일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와 IMF관리체제를 맞아 자녀중 실직한 자녀가 있는지 실직자녀 유무를 변인에 포함하였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

본 연구는 윤진(1982)의 노인 생활만족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부문의 8개 문항(긍정적 4개, 부정적 4개)과 경험부문 12개 문항(긍정적 6개, 부정적 6개)의 전체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3점 척도이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0.90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는 달성군 7개 읍·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98. 3. 12~14일까지 달성군 현풍면에 거주하는 노인 25명을 면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98. 3. 16~27일까지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연구자와 조사원 3명이 마을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남녀노인을 면접하고 응답을 질문지에 기입하였다. 총 314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대상자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 <표 1> 남자노인은 146명(46.5%), 여자노인은 168명(53.5%)이며 여자노인 비율이 더 높은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

연령은 76세 이상 노인이 30.3%로 가장 많았고 남자노인이 대체로 연령이 높은 사례가 많았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이 69.4%로 가장 높았고 남·여 노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남자노인의 교육수준이 여자노인보다 높았다. 전국의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지훈(1997)의 연구결과보다도 무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상자의 교육수

〈표 1〉 사회인구학적변인분포

변 인	범 주	전 체		성 별			
		N	%	남		여	
				N	%	N	%
연 령	60~65세 이하	42	13.4	25	17.1	17	10.1
	66~70세 이하	83	26.4	41	28.1	42	25.0
	71~75세 이하	94	29.9	37	25.3	57	33.9
	76세 이상	95	30.3	43	29.5	52	31.0
	계	314	100.0	146	100.0	168	100.0
교육수준	무 학	218	69.4	70	48.0	148	88.1
	초 졸	79	25.2	60	41.1	19	11.3
	중 졸 이상	17	5.4	16	10.9	1	0.6
	계	314	100.0	146	100.0	168	100.0
종 교	불 교	178	56.7	71	48.6	107	63.7
	기독교, 카톨릭	27	8.6	7	4.8	20	11.9
	무	109	34.7	68	46.6	41	24.4
	계	314	100.0	146	100.0	168	100.0

준이 대체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종교를 살펴보면 종교를 가진 경우의 대부분이 불교(56.7%)였고 여자노인이 종교를 가진 경우가 75.6%로 높았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One-wa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test,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PC-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본 조사대상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이 1.97로 중간보다 조금 낮아 김지훈(1997)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나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군부노인이 시부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이가옥(1994)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만족도는 2.07, 여자노인의 만족도는 1.89로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명자(1982), 박충선(1990), 김지훈(199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표 2〉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구 분	전 체(314)		성 별			
	평균(Mn)	표준편차(Sd)	남(146)		여(168)	
			Mn	Sd	Mn	Sd
생활만족도	1.97	0.50	2.07	0.47	1.89	0.53
			t값 및 유의도		3.23**	

**P<.01

2. 관련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생활만족도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표 3〉 연령, 종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졸이상 집단이 무학인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일반적인 견해(박충선, 1989·김명자, 1982·박경숙, 1996)와 일치하였다.

연령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김지훈(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종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종교활동을 하는 참여자가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박미령, 1970·맹희재, 1985)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 남녀노인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연령, 교육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은 남자노인의 교육수준이 높고 또한 생활만족도가 높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경제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생활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표 4〉,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박충선, 1989; 김지훈, 1997)와 같은 결과이다. 남·녀 노인을 각각 분석하였을 때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경우 생활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가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3)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표 5〉 질병수, 주관적 건강평가의 두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질병수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질병이 많을때 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남·녀 노인별 비교에서는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유의한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 인	범 주	전 체		성 별			
		N	평균	남		여	
		N	평균	N	평균	N	평균
연 령	60~65세 이하	42	2.10	25	2.18	17	2.00
	66~70세 이하	83	1.97	41	2.17	42	1.77
	71~75세 이하	94	1.94	37	1.97	57	1.92
	76세 이상	95	1.95	43	1.99	52	1.91
	F값 및 유의도	1.03		2.01		0.97	
교육수준	무 학	218	1.91 a	70	2.00	148	1.87
	초 졸	79	2.11 b	60	2.14	19	1.99
	중 졸 이상	17	2.11 b	16	2.10	1	2.20
	F값 및 유의도	4.85**		1.40		0.64	
종 교	불 교	178	1.98	71	2.09	107	1.91
	기독교, 카톨릭	27	1.95	7	2.05	20	1.85
	무	109	1.96	68	2.03	41	1.85
	F값 및 유의도	0.08		0.76		0.28	

**P<.01

〈표 4〉 주관적 생활수준별 생활만족도

변 인	범 주	전 체		성 별			
				남		여	
		N	평균	N	평균	N	평균
생활수준	상	21	2.39 a	10	2.42 a	11	2.38 a
	중	142	2.13 b	72	2.18 b	70	2.08 b
	하	151	1.76 c	64	1.89 c	87	1.67 c
	F값 및 유의도	32.71***		10.33***		21.68***	

***P<.001

〈표 5〉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 인	범 주	전 체		성 별			
				남		여	
		N	평균	N	평균	N	평균
질 병 수	질병없음	42	2.16 a	32	2.18	10	2.12 a
	1~2 개	138	2.03 b	60	2.12	78	1.95 a
	3~4 개	94	1.91 b	39	1.97	55	1.86 b
	5개 이상	40	1.75 c	15	1.90	25	1.66 b
	F값 및 유의도	5.80***		2.07		2.68*	
주 관 적 건강평가	매우 건강	86	2.26 a	62	2.22 a	24	2.35 a
	건강한 편	102	2.07 b	40	2.16 a	62	2.01 b
	조금 아픔	71	1.74 c	22	1.88 b	49	1.67 c
	매우 아픔	55	1.66 c	22	1.68 c	33	1.65 c
	F값 및 유의도	27.84***		10.75***		15.25***	

주)*P<.05 **P<.01 ***P<.001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관적 건강평가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녀 노인 각각의 경우에도 건강평가가 나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혜경(1984), 박계범(1985), 박충선(1989), 박경숙(1996), 김지훈(1997) 등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4)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6〉 가족유형, 배우자 유무, 자녀수, 농사일 참여 여부, 자녀와의 유대관계, 실직자녀 유무 등 모든 관련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가족유형에서는 노인부부가 결혼한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독거노인이 가장 낮았다. 남·녀 노인별 비교에서는 남자노인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자노인이 자녀와의 관계여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을 때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로 보면 남자노인에 있어서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만족도가 낮다는 홍순혜(1984)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망을 잃기 때문에 남자노인이 더 고립되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Adams(1979)의

〈표 6〉 가족환경적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 인	범 주	전 체		성 별			
		N	평균	남		여	
				N	평균	N	평균
가족유형	독거노인	73	1.76 a	14	1.84	59	1.74 a
	노인부부가족	129	2.06 b	95	2.08	34	2.01 b
	결혼한자녀+노인단독	51	1.99 b	6	1.96	45	1.99 b
	결혼한자녀+노인부부	30	2.13 c	14	2.24	16	2.02 b
	기타	31	1.94 b	17	2.13	14	1.70 a
	F값 및 유의도	5.00***		1.47		2.78*	
배우자 유 무	배우자 유	180	2.06	126	2.11	54	1.95
	배우자 무	134	1.85	20	1.83	114	1.86
	t값 및 유의도	3.67***		2.57*		1.05	
자녀 수	1~2 명	36	1.78 a	12	1.92	24	1.71 a
	3~4 명	118	2.07 b	63	2.14	55	1.98 b
	5 명이상	160	1.95 b	71	2.03	89	1.88 b
	F값 및 유의도	5.15**		1.51		2.39*	
농사일 참여여부	참 여	166	2.07	101	2.11	65	2.00
	비참여	148	1.86	45	1.98	103	1.82
	t값 및 유의도	3.61***		1.61		2.24*	
자녀와의 유대관계	유대정도 상(23~30)	82	2.25 a	37	2.26 a	45	2.25 a
	유대정도 중(15~22)	205	1.92 b	98	2.04 b	107	1.81 b
	유대정도 하(6~14)	27	1.53 c	11	1.69 c	16	1.42 c
	F값 및 유의도	27.96***		7.59***		22.49***	
자녀실직 유 무	실직자 있음	96	1.74	35	1.82	61	1.69
	실직자 없음	218	2.07	111	2.15	107	1.98
	t값 및 유의도	5.62***		3.74***		3.73***	

주) *P<.05 **P<.01 ***P<.001

연구결과와 같은 것이다.

생활만족도는 자녀수가 많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3~4명인 경우 가장 높았다. 남·녀 노인별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남자노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여자노인의 경우 차이를 보여 자녀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농사일 참여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참여하는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여 성별로 보면 남자노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노인은 농사일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자녀와

의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노인별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지훈(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최혜경, 1984), 가족결속도가 높을수록(김수연, 1987)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같다.

실직자녀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도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녀의 상황이 농촌노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여성노인의

경우 특히 배우자보다는 자녀와의 관계 및 경제적 생활기반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생활만족도의 관련변인 중다회귀분석

〈표 7〉은 전체노인 및 남녀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생활수준, 건강상태, 자녀와의 유대관계, 실직자녀 유무가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35.34% 설명해주는 주요 변인들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건강할수록, 자녀와의 유대가 강할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실직한 자녀가 없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를 살펴보면 전체노인의 경우는 자녀와의 유대관계, 건강상태, 생활수준, 실직자녀 유무 순으로 나타났고, 남자노인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실직자녀 유무, 생활수준, 자녀와의 유대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경우는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생활수준, 건강상태, 실직자녀 유무 순으로 나타나 남·여 노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V. 결론 및 논의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노령층 증가와 노년기 확대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장, 부양인구의 증대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문제와 노년기 여가 시간 활용, 경제활동참여, 사회심리측면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학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노인들이 노년기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개인적·가정적·사회적 환경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질적·양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여건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농촌노인의 생활을 이해하여 농촌노인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중간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 대체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높아 유의한 차

〈표 7〉 생활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 인	전체노인(N=314)		남자노인(N=148)		여자노인(N=168)	
	b	β	b	β	b	β
성 별	-1.013	-0.047				
연 령	0.171	0.110	0.130	0.104	0.125	0.070
교육수준	0.032	0.000	1.975	0.080	-13.453	-0.105
종교 유무(유=1)	-0.334	-0.015	-0.115	-0.006	-1.113	-0.045
생활수준	3.994***	0.236	3.817*	0.233	4.103**	0.242
건강상태	0.979***	0.239	0.997**	0.281	1.077***	0.239
자녀와의동거여부(여=1)	0.928	0.040	0.681	-0.022	0.618	0.028
배우자 유무(유=1)	0.955	0.046	1.258	0.051	0.711	0.031
자녀 수	-0.214	-0.037	-0.967	-0.160	0.097	0.017
농사일 참여여부(여=1)	1.550	0.075	0.439	0.021	1.798	0.083
자녀와의 유대관계	0.545***	0.243	0.473*	0.228	0.603***	0.262
실직자녀 유무(유=1)	-3.875**	-0.175	-6.162**	-0.272	-3.106*	-0.142
	R ² = 35.34 F = 10.11***		R ² = 36.33 F = 3.83***		R ² = 36.09 F = 7.03***	

이를 보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변인별 생활만족도는 연령,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남·녀 노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교육수준이 매우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농촌노인의 교육수준이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은 농촌노인들의 교육수준의 차이자체가 도시에 비해 변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노인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를 보였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여자노인의 경우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질병수, 주관적 건강평가 두 변인 모두 대체로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녀 노인 모두 질병이 많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 평가가 나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가족환경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족유형, 배우자 유무, 자녀수, 농사일 참여여부, 자녀와의 유대관계, 실직자녀 유무 등 관련변인 모두에서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에서는 무배우노인보다 결혼한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노인부부의 경우에 가장 높았고 독거노인이 가장 낮았으나 남녀별로 보면 남자노인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만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시노인에 있어 남녀노인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만족도가 높는데 비해 농촌여성노인은 배우자유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녀수와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자녀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3~4명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여자노인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자노인의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사일 참여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참여하는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 볼 때 남자노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노인은 참여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유대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자녀와의 유대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직자녀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도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녀의 상황이 노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생활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생활수준, 건강상태, 자녀와의 유대관계, 실직자녀 유무가 생활만족도를 35.34% 설명해 주는 주요 변인들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건강할수록, 자녀와의 유대가 강할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실직한 자녀가 없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를 살펴보면 전체노인의 경우는 자녀와의 유대관계, 건강상태, 생활수준, 실직자녀 유무 순이나 남자노인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여자노인의 경우는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남녀 노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낮고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한 김지훈(1997), 박경숙(1996)의 결과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농촌의 노인단독 및 노부부가족이 많아 자녀에게서 일상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 노인별 분석에서 남녀 노인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노인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고 여자노인의 경우는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남자노인은 개인적 측면이, 여

자노인의 경우는 가족유대, 특히 자녀와의 접촉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접근도 달라야 하리라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건강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하면 농촌노인의 의료보장제도의 확대 및 노인 건강상담소의 설치, 노인정에 체력관리기구지원 등의 정책적 차원에서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농촌노인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금제도, 노인 할인제도, 노인수당의 도입과 같은 복지정책과 농촌노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공세권(1995).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이와 사회인구학적 특성, 농촌생활과학지 64, 농촌생활연구소.
- 2)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
- 3)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4) 김선희(1989).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노인의 자기보고식 측정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5) 김지훈(1997). 농촌노인 단독가구 노인의 성인 자녀관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6) 맹희재(1985). 재가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7)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장남부부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8) 박경숙(1996). 농촌노인의 사회참여 실태와 사회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9) 박계범(1986). 노인의 가정내 역할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10) 박미령(1970). 가족내 노인의 역할과 소외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1) 박충선(1989). 대구·경북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가족생활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
- 12) 박혜인, 최미경(1991). 주거지역에 따른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17.
- 13) 서미경(1990). 노인의 정신건강과 부양의 완충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 14) 윤진(1982). 노인생활만족도 척도 제작연구, 한국심리학회초록집.
- 15) 이가옥 등(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6) 이효재외(1979). 한국 저소득층 생활구조에 관한 사회경제 및 공간문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2.
- 17) 이옥재(1980). 한국도시노인에 관한 연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교-,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8) 유시중(1980).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동양문화연구원 7.
- 19) 유성호·모선희(1997). 노후생활만족에 관련된 변인: 남녀차이에 대한 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1.
- 20) 장상희(1983).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 사회조사연구 2-1.
- 21)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
- 22) 최혜경(1984).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가족 부양 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23)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4) Adams, B. N.(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25) Collette, J.(1984).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ustralian Data, Journal of Gerontology, 39.

- 26) Lee, G. R.(1979). Children and the elderly: interaction and morale. *Research in Aging* 1.
- 27) Liang, J.(1984). Dimensions of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a structural formul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9.
- 28) Mindel, C. H, and Wrigh, R.(1982). Satisfaction in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Journal of Gerontology* 37.
- 29) Mancini, J. A.(1972). Family relationships and morale among people 65years of age and ol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49.
- 30) Markides, K, S. and Martin, H. W.(1979).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4.
- 31) Quinn, W. 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32) Shanas, E.(1979). The family as a social support system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19.